

반도체/장비

2026년 5월 Preview: 확산(擴散)

2026년 4월 Review: 공포를 삼킨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의 실적

전월 20% 넘는 폭락세를 보였던 주요 메모리 공급업체의 주가는, 각각 Sandisk +53.6%, SK하이닉스 +46.1%, Micron +40.9%, 삼성전자 +20.4% 상승하며 낙폭을 상회하는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요 비메모리 업체 또한 AMD가 +60.4%라는 독보적인 수익률로 섹터 전반의 밸리를 주도한 가운데, NVIDIA +19.1%, TSMC +17.5% 상승하며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이는, 1) 4월 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2) 3월 구글의 'Turbo Quant' 쇼크의 재해석, 그리고 3) 4월 내내 이어진 AMD/Intel 등 CPU 진영의 가격 인상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가 AI 하드웨어 시장에 '실적 확증(確證)'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5월 주요 Tech 이슈: AMD/ARM 실적발표 & 2026 삼성 파운드리 행사

5월 5일과 6일로 각각 예정된 AMD와 ARM의 실적 발표는 최근 인텔이 제시한 'Agentic AI 기반의 CPU 수요 폭발' 논리를 재차 검증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MD의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서버용 CPU인 'EPYC' 시리즈의 성장 여부다. 인텔이 이미 에이전틱 AI 워크로드에서 GPU 대비 CPU 탑재 비율이 과거 8:1 수준에서 1:1 혹은 그 이상으로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한 만큼, AMD 역시 최신 프로세서의 공급 부족과 평가 상승을 언급할지가 핵심 관전포인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가속기 부문에서는 'Instinct MI300' 시리즈의 추론 시장 침투력과 공급 가시성이 주요 관점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현재 경쟁사 인텔이 극심한 공급 제약을 호소하고 있어, AMD가 얼마나 유연하게 추가 수요를 흡수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RM Holdings의 실적 발표 역시 Agentic AI 시대에 CPU의 '전력 효율성'이 왜 핵심 경쟁력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구글(Axion), 아마존(Graviton)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RM 아키텍처 기반의 자체 CPU 설계를 가속화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수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에이전트 서비스 환경에서 전력 비용 절감은 곧 서비스 단가의 현실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5월 28일 개최되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및 SAFE 포럼 2026'은 작년의 비전 선포 단계를 넘어 실제 고객사 확보와 양산 준비 현황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2026년 하반기 양산 예정인 SF2 공정의 수율 안정화와 테일러 펌의 실질적인 가동 스케줄이다. 특히 최근 인텔과 AMD가 겪고 있는 선단 공정 공급 병목 현상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기술적 신뢰도를 각인시키며 유일한 대안(Second Source)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SAFE™ 포럼을 통한 생태계 확장 스토리도 기대한다. 국내외 주요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빅테크들의 복잡한 AI 칩 설계를 밀착 지원하는 '디자인 솔루션' 역량이 강조될 전망이다.

(2페이지에 이어서)



백길현, USCPA 반도체
gilhyun.baik@yuantakorea.com

임석민 Research Assistant
seokmin.lim@yuantakorea.com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삼성전자	BUY (M)	340,000 (M)
SK 하이닉스	BUY (M)	1,900,000 (M)
오픈엠티테크놀로지	BUY (M)	28,000 (M)
AMD	Not Rated (M)	- (M)
Intel	Not Rated (M)	- (M)
Alphabet	Not Rated (M)	- (M)
Microsoft	Not Rated (M)	- (M)
Meta	Not Rated (M)	- (M)
Tesla	Not Rated (M)	- (M)

더불어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AI 툴키솔루션(Logic + Memory + Packaging)'의 실질적 수혜도 기대한다. 지난 3월 체결된 AMD와의 차세대 AI 메모리 협력이 향후 6세대 EPYC(Venice) 등 주요 제품의 칩렛 생산을 삼성 공정으로 이원화하는 '멀티 파운드리' 전략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AMD가 칩렛 구조의 유연성을 활용해 I/O 칩렛이나 특정 라인업의 생산 및 최종 패키징을 삼성에 맡긴다면, 이는 향후 삼성전자 DS 부문에게 단순 파운드리 매출 이상의 '패키징 + 메모리' 통합 성장을 가져다줄 강력한 촉매제가 될 뿐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Re-rating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4만원을 유지한다.

메모리 반도체 업종 리스크 점검 & 비중 확대 전략 유지

4월 30일 새벽에 발표한 미국 Big tech 4개 기업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며 AI 인프라 확충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를 명확히 했다. 기업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AI 투자 계획을 '클라우드 수익'으로 증명했는지에 따라 시장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아마존(AMZN)은 AWS 매출이 전년 대비 28% 급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 '투자=성장'의 공식을 입증하며 시간외 주가가 1.9% 상승했다. 알파벳(GOOG) 역시 클라우드 매출 200억 달러 돌파와 함께 2022년 이후 최고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Capex 상향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6.6% 상승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확충 속도에 따른 마진 압박 우려가 부각되며 1.8% 하락했고, 메타(META)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지표의 둔화와 과도한 투자 비용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로 7.1% 급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조정은 역설적으로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반도체 업황에는 견고한 하방 지지력을 형성하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OpenAI의 사용자 수 정체 및 매출 목표 미달 소식이나, Anthropic이 공개한 보안 위협 모델인 '미토스(Mythos)' 이슈 등을 근거로 AI 거품론과 무용론을 제기한다. 다만 이러한 노이즈는 오히려 AI 인프라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촉진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보안 위협이 커질수록 더 정교한 추론과 실시간 탐지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더 높은 성능의 HBM을 포함한 고용량 DRAM과 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고용량 eSSD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빅테크의 '비용 우려'와 '시장 불확실성'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확정된 수익'과 '시장 내 입지 강화'로 치환될 전망이다. 빅테크들이 직면한 연산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BM3E 및 차세대 HBM4/HBM4e의 대량 도입 및 고용량 메모리반도체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 가격 인상 사이클은 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AI 모델이 학습을 넘어 추론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 저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주목한다. AI Capex 내 메모리반도체의 BoM Cost 비중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며,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2026년 4월 Review

1. 글로벌 주요 Tech 기업 주가 Performance

2026년 4월 글로벌 주요 Tech 기업들의 주가 Performance는 3월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며 기록적인 V자 반등을 시현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장 기록인 17거래일 연속 상승을 달성하며 10,000포인트 고지를 돌파한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6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차트1] 전월 20%가 넘는 폭락세를 보였던 주요 메모리 공급업체의 주가는 각각 Sandisk +53.6%, SK하이닉스 +46.1%, Micron +40.9%, 삼성전자 +20.4% 상승하며 낙폭을 상회하는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요 비메모리 업체 또한 AMD가 +60.4%라는 독보적인 수익률로 섹터 전반의 랠리를 주도한 가운데, NVIDIA +19.1%, TSMC +17.5% 상승하며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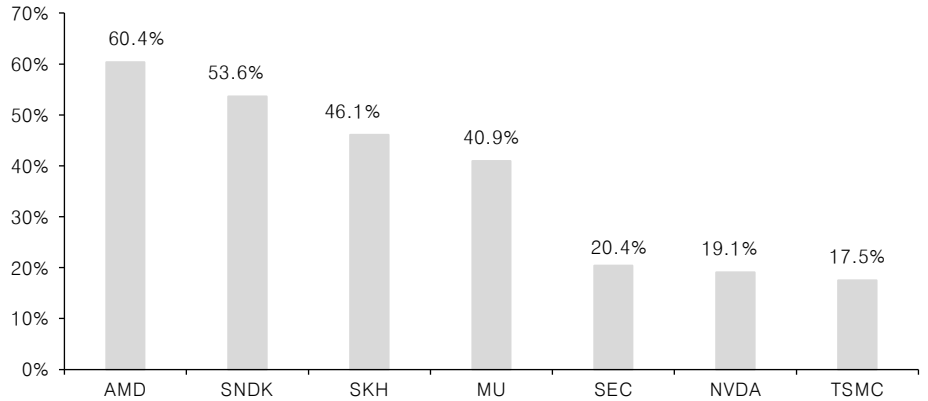
이는, 1) 4월 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2)3월 구글의 'Turbo Quant' 쇼크의 재해석, 그리고 3) 4월 내내 이어진 AMD/Intel 등 CPU 진영의 가격 인상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적 확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3월의 하락 트리거였던 구글의 KV 캐시 압축 기술(Turbo Quant)은 4월 들어 'Agentic AI의 상업적 가동'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재해석되었다. 소프트웨어 효율화가 추론 단가 하락으로 이어지자 빅테크들의 에이전트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더 높은 사양의 메모리 채용과 인프라 확장을 강제하는 '제본스의 역설(Jevons Paradox)'을 입증하며 주요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4월 22일 개최된 Google Cloud Next '26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구글이 에이전틱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차세대 추론 칩 'TPU 8i'를 전격 공개하고, 엔비디아와 '에이전틱 AI 슈퍼스택' 전략적 동맹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이다. 이는 단순 압축을 통한 자원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효율화로 확보한 연산 자원을 더욱 복잡한 추론과 상시 학습(Reasoning Bank)에 재투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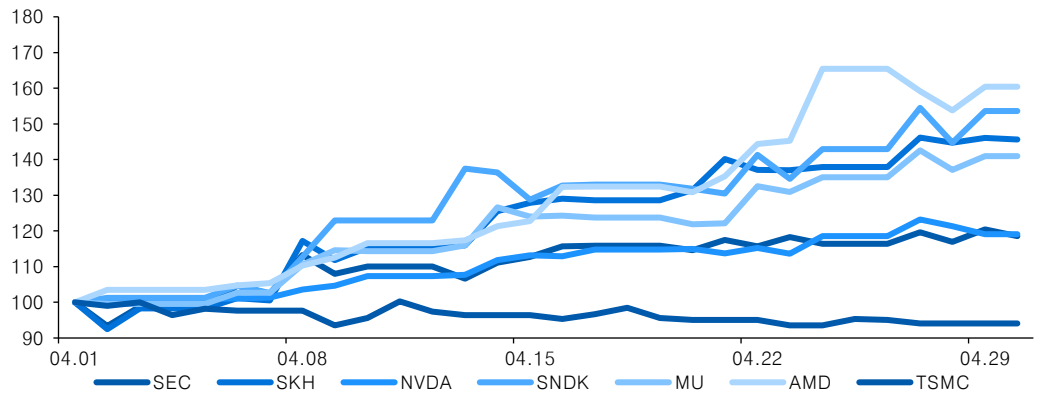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경험을 학습하고 '항시 구동(Always-on)'되는 구조로 진화함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진영의 협력은 오히려 메모리 자원의 물리적 한계치(용량 및 대역폭)를 지속적으로 상향시키는 핵심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차트 1.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4월 주가 Performance -1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년 4월 30일 종가 기준

차트 2.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4월 주가 Performance -2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년 4월 30일 종가 기준, 26.04.01=100

표 1.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월별 주가 Performance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6.01	26.02	26.03	26.04
SEC	18.6	1.2	24.1	25.2	-8.8	19.7	24.4	43.8	-22.9	20.4
SKH	-4.2	4.3	35.7	55.6	-14.6	21.2	33.3	26.5	-24.0	46.1
NVDA	16.0	0.3	9.3	8.1	-14.4	3.7	1.2	-4.5	-9.5	19.1
SNDK	-4.5	27.0	119.7	64.6	7.9	12.9	109.4	-4.5	-7.5	53.6
MU	-9.7	13.5	41.2	22.8	0.8	18.7	31.5	-5.8	-22.0	40.9
AMD	29.5	-5.3	-0.3	56.2	-16.2	-2.5	5.9	-18.7	-1.3	60.4
TSMC	6.9	1.8	12.0	13.2	0.0	0.0	12.0	13.0	-10.9	17.5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Intel 실적발표 주요 내용과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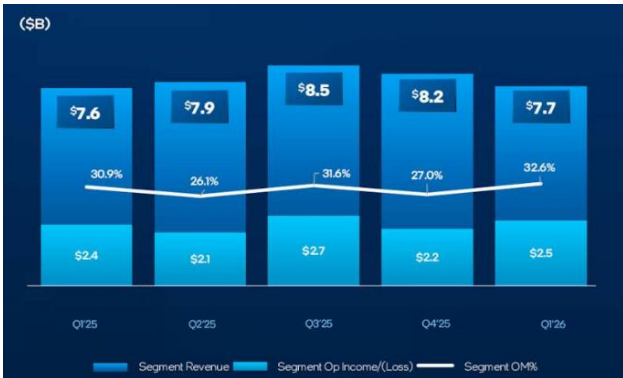
시장 컨센서스를 압도한 이익의 질적 성장

동사 2026년 1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가이던스 상단을 돌파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매출은 \$13.58B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2% 성장했고, 특히 Non-GAAP 기준 EPS는 \$0.29를 기록하여 시장 컨센서스(\$0.01)를 크게 상회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이익의 질적 개선'에 있다. 데이터센터용 Xeon 프로세서의 믹스 개선과 클라이언트 부문의 견조한 수요가 전사 마진을 개선을 견인했다. 인텔이 추진해온 비용 구조 개선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수급 반등을 넘어선 펀더멘털의 체질 개선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데이터센터 및 AI(DCAI) 그룹이 매출액 \$5.1B(YoY +22%)을 기록하며 전사 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가속기 시장의 독주 속에서도 '범용 연산 및 추론용 CPU'의 필수성이 재부각되며 고부가 제품군의 출하량이 급증한 점이 고무적이다. Intel Foundry 부문 역시 매출액 \$5.4B(YoY +16%)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지속했다. 비록 영업손실(\$2.4B) 구간에 머물러 있으나, 전분기 대비 적자 폭이 축소되었고 18A 공정의 조기 수율 안정화와 Tesla를 포함한 다수의 대형 외부 고객사를 14A 노드까지 확보했다는 점은 파운드리 독립 법인으로서의 자생 가능성을 높였다.

하반기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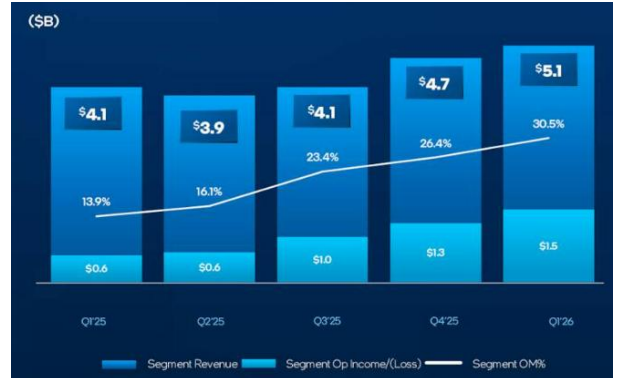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3.0B~\$14.0B(중앙값 \$13.5B)로 제시하며, 1분기 실적 수준을 유지하는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다. 이는 하반기 'Intel 18A' 공정의 대량 양산 진입과 차세대 CPU 제품군 출시를 앞두고 발생하는 공정 전환 비용 및 R&D 투자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특히 기업용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도입 확산이 서버당 CPU 연산 비중(Intensity)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워크로드별 GPU 대비 CPU 탑재 비율에 따르면, 과거 학습(Training) 단계의 8:1 수준에서 추론(Inference) 단계 4:1로 좁혀졌으며, 에이전틱 및 멀티에이전트 구동 단계에서는 1:1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CPU 비중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낮아진 추론 비용이 에이전트 서비스의 상용화 속도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며,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전성비 효율이 증시되는 AI PC, 엣지(Edge), 피지컬 AI 영역에서 CPU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를 포함한 글로벌 CPU 밸류체인(AMD, ARM 등) 실적 및 주가에 긍정적인 전망이다.

그림 1. Intel CCG 사업부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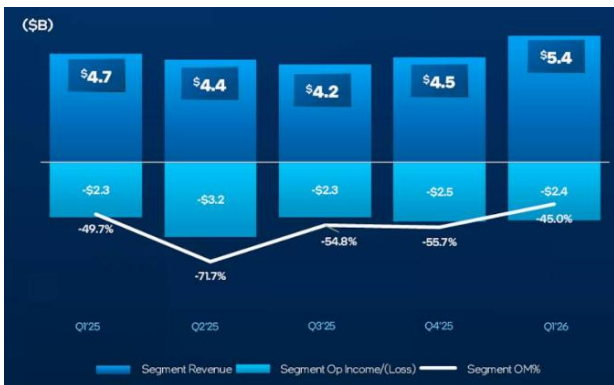
자료: IR(2026 월 4 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Intel DCAI 사업부 실적 추이



자료: IR(2026 월 4 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Intel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추이



자료: IR(2026 월 4 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Intel 차기분기 가이드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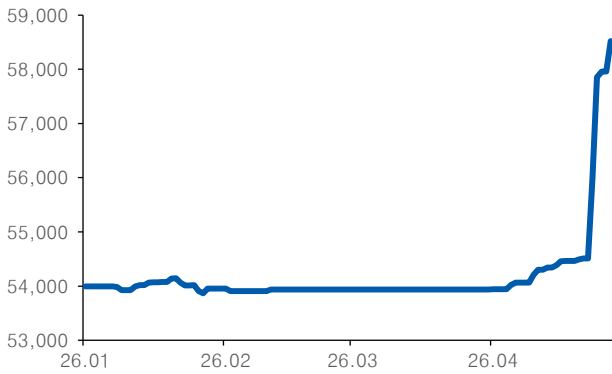
자료: IR(2026 월 4 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인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QnA

질문자 (소속)	질문	인텔 측 답변
Ben Reitzes (Melius Research)	구글과의 장기 계약(LTA) 구조와 가시성 확보 방안은?	구글과 Xeon 및 IPU 중심의 다년 계약 체결. (신뢰 관계 입증) 공급망 가시성 확보를 위한 물량 및 가격이 확정된 3~5년 구조. 이는 에이전틱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승리 사례임.
Ben Reitzes (Follow-up)	설비투자(CapEx) 계획과 파운드리 고객용 투자 시점은?	올해 CapEx는 전년과 유사한 'Flat' 수준이나, 구성은 '공간(Space)' 비중을 줄이고 '장비(Tool)' 비중을 25% 이상 확대. 외부 파운드리 고객 신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더욱 구체화될 전망.
Ross Seymore (Deutsche Bank)	서버 CPU 경쟁력 및 타사(ARM 등) 대비 차별점은?	추론(Inference) 시 CPU 비중이 과거 1:8(GPU 대비)에서 1:4 혹은 그 이상(Parity)으로 급증 중. 에이전트 데이터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에 CPU가 훨씬 효율적. Granite Rapids의 초기 반응이 매우 좋으며, 공정/패키징 경쟁력이 강력함.
Stacy Rasgon (Bernstein)	매출 성장 대비 영업이익률(Gross Margin)이 정체된 이유는?	18A 공정(Panther Lake) 물량 확대가 초기에는 마진에 부담으로 작용 (전분기 대비 6~7배 물량 증가). 원자재 단가 상승(기판, 유리, 메모리 등)이 이익 개선폭을 일부 상쇄. 다만 2분기 중 유의미한 평가(Pricing) 상승 효과가 반영될 예정.
Timothy Arcuri (UBS)	테슬라(Terafab) 등 파운드리 협력 모델의 성격은?	14A 노드 기반으로 일론 머스크와 긴밀히 협력 중. 글로벌 공급망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조 방식을 공동 탐색. 테슬라 외에도 다수의 대형 고객사와 0.9 PDK 단계에서 논의 중.
Vivek Arya (BofA)	서버 CPU 시장 성장성(TAM)과 ARM 진영의 위협은?	시장은 이제 역성장이 아닌 유의미한 성장(Up meaningfully) 구간 진입. 에이전틱 CPU 워크로드에 의해 코어(Core) 수 증가 및 ASP 리프트 효과 발생. ARM 진영의 라이선싱 모델을 존중하나, 인텔은 x86 기반의 성능 우위와 파운드리/패키징 통합 솔루션으로 대응.
C.J. Muse (Cantor)	하반기 출하량 확대(Supply Up)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Intel 10, 7, 3, 18A 모든 노드의 웨이퍼 스타트 확대. 전통적인 방식(수율 및 사이클 타임 개선)을 통한 물량 확보에 집중. TSMC와의 파트너십도 매우 중요하며, 제품군별 최적의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멀티 파운드리 전략 유지.
Srini Pajjuri (RBC)	18A 수율 현황과 ASIC 비즈니스(IPU 등) 전략은?	18A 수율 목표치를 당초 연말 예상보다 빠른 연중(Middle of year)에 달성할 것. ASIC 비즈니스는 이미 연간 \$1B 이상의 런레이트(Run-rate)를 기록 중인 거대 시장. 고객별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Purpose-built Silicon' 수요에 집중할 것.
Joshua Buchalter (TD Cowen)	에이전틱 워크로드의 CPU 수요를 어떻게 모델링해야 하나?	GPU 대비 CPU 비율의 변화: 훈련(1:8) → 추론(1:4) → 에이전틱/멀티에이전트(1:1 수준 혹은 역전 가능성).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AI PC, 엣지, 피지컬 AI 영역에서 CPU의 전성비 효율로 인해 더욱 폭발적 성장이 예상됨.
Joshua Buchalter (Follow-up)	선단 공정 파운드리의 타이트한 공급이 인텔 점유율에 도움되나?	현재는 대부분의 공급이 내부 물량 위주이나, 자체 캡티브(Captive)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이 장기적 고객 확보에 핵심 경쟁력임.
Aaron Rakers (Wells Fargo)	2분기 가이드스 내 공급 제약(Constraint) 수준은 어떠한가?	공급은 1분기를 저점으로 매 분기 증가할 것. 1분기에는 재고(완제품) 활용으로 수요에 대응했으나, 2분기부터는 순수 생산량(Volume) 증가가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 현재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공급망을 풀가동 중인 상태.
Aaron Rakers (Follow-up)	차세대 서버 CPU(Xeon) 로드맵과 멀티스레딩(SMT) 도입 시점은?	Granite Rapids → Diamond Rapids → Coral Rapids 순으로 진행. Coral Rapids에서 멀티스레딩(SMT)을 도입하여 경쟁사(AMD 등) 대비 성능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예정. 단기적으로는 ASIC 비즈니스를 통해 고객 맞춤형 칩 (Purpose-built)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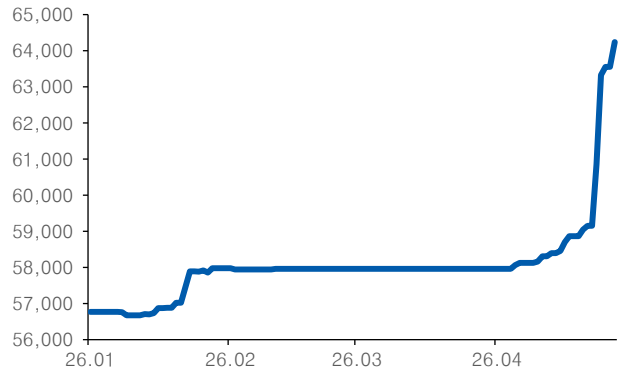
자료: Intel(2026년 4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3. Intel 2026년 매출액 전망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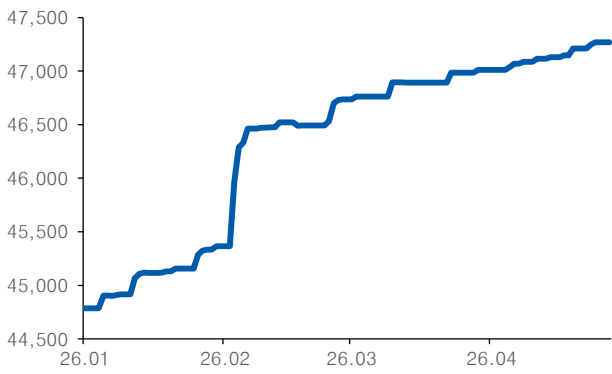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차트 4. Intel 2027년 매출액 전망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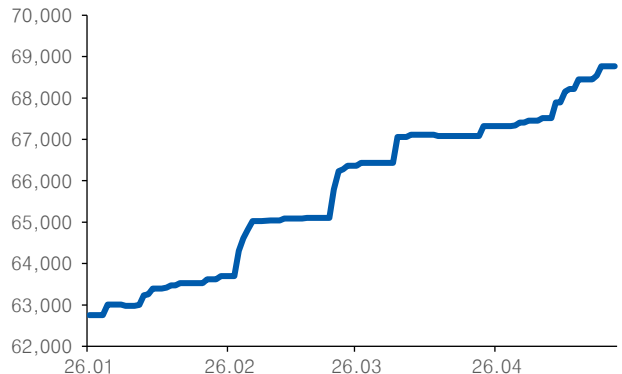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차트 5. AMD 2026년 매출액 전망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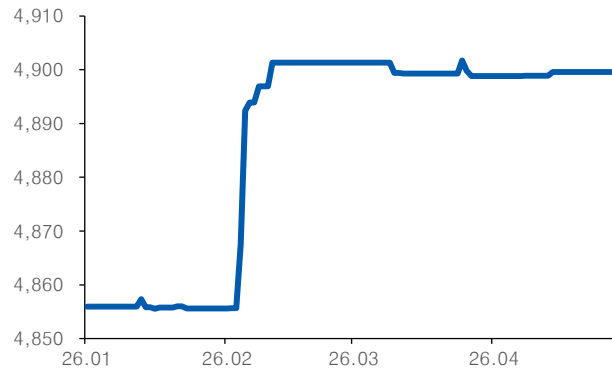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차트 6. AMD 2027년 매출액 전망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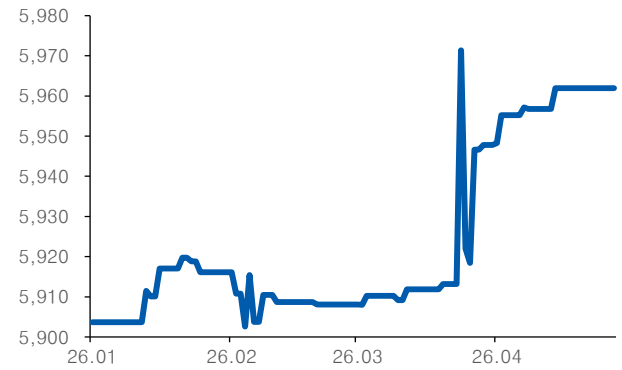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차트 7. ARM 2026년 매출액 전망 및 추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차트 8. ARM 2027년 매출액 전망 및 추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5월 Preview

1. AMD/ARM 실적발표: CPU 시장의 질적 성장 재확인

5월 5일과 6일로 예정된 AMD(AMD US)와 ARM(ARM US)의 실적 발표는 인텔이 제시한 '에이전틱 AI 기반의 CPU 수요 폭발' 논리를 재차 검증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MD의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서버용 CPU인 'EPYC' 시리즈의 성장 여부다. 인텔이 이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에이전틱 AI 워크로드에서 GPU 대비 CPU 탑재 비율이 과거 8:1 수준에서 1:1 혹은 그 이상으로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한 만큼, AMD 역시 최신 프로세서의 공급 부족과 판가 상승을 언급할지가 핵심 관전포인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AMD에서도 고사양 CPU의 공급 불균형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적 서프라이즈를 넘어 CPU 시장 전체의 가치 재평가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AI 가속기 부문에서는 'Instinct MI300' 시리즈의 추론 시장 침투력과 공급 가시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현재 인텔이 극심한 공급 제약을 호소하고 있어, AMD가 얼마나 유연하게 추가 수요를 흡수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AMD 역시 자체 GPU와 CPU 물량이 생산 라인에서 충돌하며 발생하는 '공급 동반 병목' 상태에 놓여 있어, 향후 가이던스를 통해 제시될 하반기 공급 확약 수준이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OpenAI 및 Meta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와 성과 연동 Warrant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고객 저변이 다변화되었는지도 향후 주가 및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어지는 ARM Holdings의 실적 발표 역시 에이전틱 AI 시대에 CPU의 '전력 효율성'이 왜 핵심 경쟁력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구글(Axion), 아마존(Graviton), 마이크로소프트(Cobalt)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RM 아키텍처 기반의 자체 CPU 설계를 가속화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수만 대의 서버를 운용하는 에이전트 서비스 환경에서 전력 비용 절감은 곧 서비스 단가의 현실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동사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지표는 차세대 아키텍처인 'ARM v9'의 채택 비중이다. v9은 기존 v8 대비 로열티 효율이 약 2배가량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파악되는데, 인프라 효율화를 추구하는 빅테크들의 전환 수요가 확인될 경우 ARM의 이익 개선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설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ARM 컴퓨팅 서브시스템'의 매출 기여도 역시 핵심 관전 포인트다. 북미 주요 빅테크들이 칩 설계의 복잡성을 ARM에 맡기고 서비스 최적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ARM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 IP 라이선스를 넘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2. 2026 삼성 파운드리 행사 관전 포인트

5월 28일 개최되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및 SAFE 포럼 2026'은 작년의 비전 선포 단계를 넘어 실제 고객사 확보와 양산 준비 현황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2026년 하반기 양산 예정인 2nm(SF2) 공정의 수율 안정화와 테일러 펩의 실질적인 가동 스케줄이다.

특히 최근 인텔과 AMD 가 겪고 있는 선단 공정 공급 병목 현상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기술적 신뢰도를 각인시키며 유일한 대안(Second Source)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4nm 수율이 상당 수준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테슬라 등 상징적인 고객사를 확보한 낙수효과가 이번 포럼에서 구체적인 HPC 및 모바일용 2nm 수주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

SAFE™ 포럼을 통한 생태계 확장 스토리도 기대한다. 파운드리 공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IP와 EDA 툴의 지원인데, 이번 포럼에서 ARM 과의 협력이 CSS(컴퓨팅 서비스시스템) 레벨까지 심화되었는지 확인된다면 삼성 2nm 공정의 설계 편의성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여기에 국내외 주요 디자인하우스(DSP)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빅테크들의 복잡한 AI 칩 설계를 밀착 지원하는 '디자인 솔루션' 역량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객사가 설계도만 가져오면 삼성이 IP 최적화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삼성 파운드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동인이 될 것이다.

더불어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AI 턴키(Logic + Memory + Packaging) 솔루션'의 실질적 수혜도 기대한다. 지난 3월 체결된 AMD 와의 차세대 AI 메모리 협력이 향후 6세대 EPYC(Venice) 등 주요 제품의 칩렛 생산을 삼성 공정으로 이원화하는 '멀티 파운드리' 전략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AMD 가 칩렛 구조의 유연성을 활용해 I/O 칩렛이나 특정 라인업의 생산 및 최종 패키징을 삼성에 맡긴다면, 이는 향후 삼성전자 DS 부문에게 단순 파운드리 매출 이상의 '패키징 + 메모리' 통합 성장을 가져다줄 강력한 촉매제가 될 뿐 아니라 동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Re-rating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3. SAFE 2026 스피킹 세션 연사 및 세부사항

시간	세션명	연사	직책 / 소속
11:00 – 11:20 AM	Samsung Foundry Update & Welcoming Remarks	Jongshin Shin	EVP & Head of Design Platform Development, Samsung
11:20 – 11:40 AM	Guest Speech I	Ashok Elluswamy	VP, AI Team, Tesla
11:40 – 12:00 PM	Guest Speech II	Sassine Ghazi	President and CEO, Synopsys
12:00 – 12:20 PM	Guest Speech III	Tony Pialis	EVP and GM, Datacenter, Qualcomm Technologies
03:10 – 03:25 PM	Design Enablement for Silicon Intelligence	Hyung-Ock Kim	VP and Head of Design Technology Team, Samsung
03:10 – 03:25 PM	Design Solution for Silicon Intelligence	Ben Rhew	VP and Head of IP Development Team, Samsung

자료: SAFE 2026,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4. SAFE 2026 타임라인별 세션 일정

시간	세션
10:00 – 11:00 AM	Registration, Partner Pavilion & Networking
11:00 – 11:20 AM	Samsung Foundry Update & Welcoming Remarks
11:20 AM – 12:20 PM	Guest Speeches
12:20 – 1:40 PM	Lunch / Partner Pavilion & Networking"
1:40 – 4:10 PM	"Tech Session I / Design Enablement for Silicon Intelligence"
1:40 – 4:10 PM	"Tech Session II / Design Solution for Silicon Intelligence"
4:10 – 4:15 PM	Closing
4:15 – 6:00 PM	Partner Pavilion & Networking

자료: SAFE 2026,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삼성전자 SAFE 협력사



자료: SAFE 2026,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I Capex 내 메모리반도체의 BoM Cost 비중은 지속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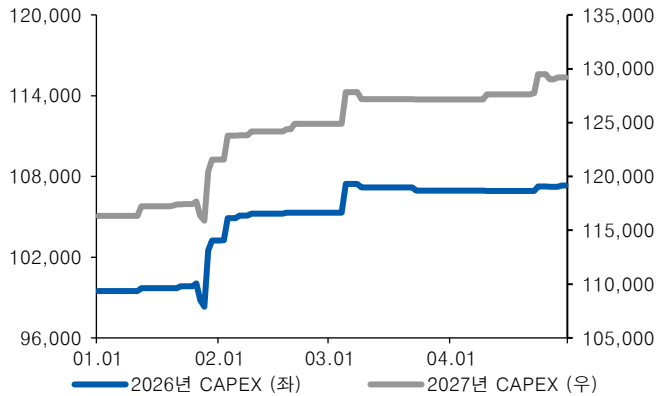
4월 30일 새벽에 발표한 미국 Big tech 4개 기업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며 AI 인프라 확충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비록 시장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자본지출이 단기적으로 이익률에 부정적일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판단이다.

기업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AI 투자 계획을 '클라우드 수익'으로 증명했는지에 따라 시장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아마존(AMZN)은 AWS 매출이 전년 대비 28% 급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 '투자=성장'의 공식을 입증하며 시간외 주가가 1.9% 상승했다. 알파벳(GOOG) 역시 클라우드 매출 200억 달러 돌파와 함께 2022년 이후 최고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Capex 상향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6.6% 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확충 속도에 따른 마진 압박 우려가 부각되며 1.8% 하락했고, 메타(META)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지표의 둔화와 과도한 투자 비용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로 7.1% 급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가 조정은 역설적으로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반도체 업황에는 견고한 하방 지지력을 형성하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OpenAI의 사용자 수 정체 및 매출 목표 미달 소식이나, Anthropic이 공개한 보안 위협 모델인 '미토스(Mythos)' 이슈 등을 근거로 AI 거품론과 무용론을 제기한다. 특히 미토스가 보여준 AI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기술에 대한 공포와 규제 강화를 불러일으키며 단기적인 투심 위축을 가져오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노이즈는 오히려 AI 인프라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촉진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보안 위협이 커질수록 더 정교한 추론과 실시간 탐지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더 높은 성능의 HBM을 포함한 고용량 DRAM과 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고용량 eSSD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AI 서비스의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빅테크들 사이의 연산 능력 확보 경쟁은 '죄수의 딜레마'처럼 멈출 수 없는 구조이며, 이는 메모리 업체들에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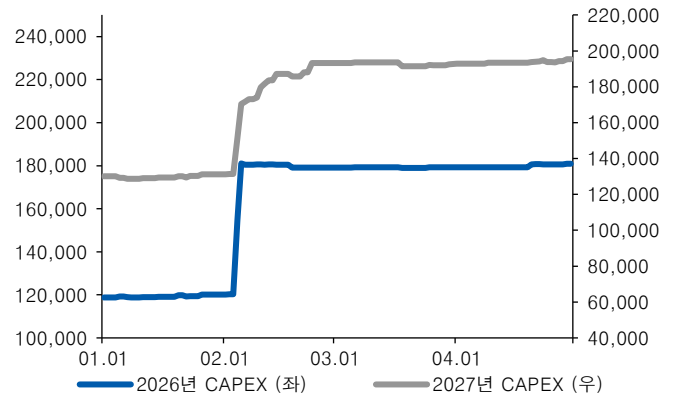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빅테크의 '비용 우려'와 '시장 불확실성'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확정된 수익'과 '시장 내 입지 강화'로 치환될 전망이다. 빅테크들이 직면한 연산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BM3E 및 차세대 HBM4/HBM4e의 대량 도입 및 고용량 메모리반도체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 가격 인상 사이클은 지속될 가능성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AI 모델이 학습을 넘어 추론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 저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주목한다. AI Capex 내 메모리반도체의 BoM Cost 비중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며,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차트 9. Microsoft 2026년, 2027년 CapEx 전망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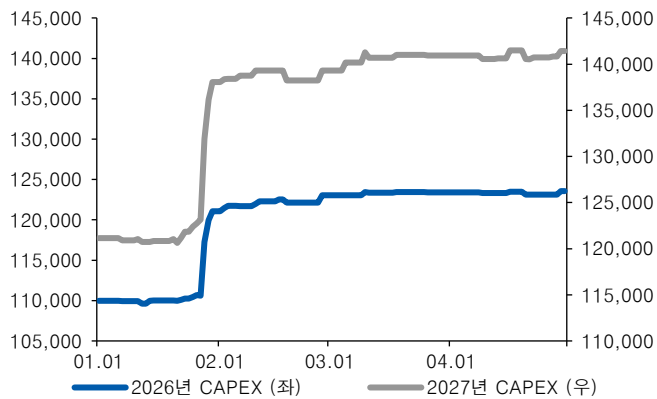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차트 10. Alphabet 2026년, 2027년 CapEx 전망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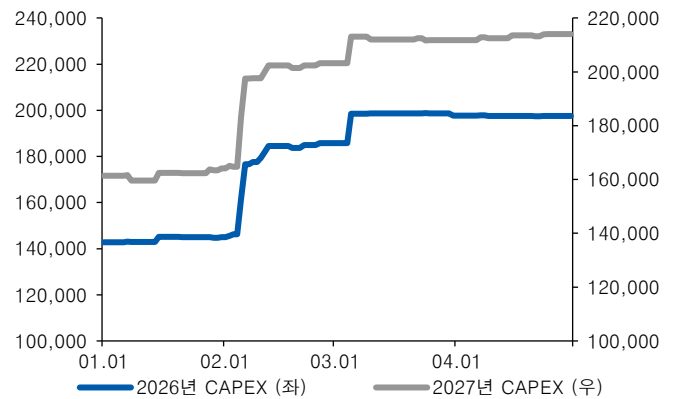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차트 11. Meta 2026년, 2027년 CapEx 전망 및 추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차트 12. Amazon 2026년, 2027년 CapEx 전망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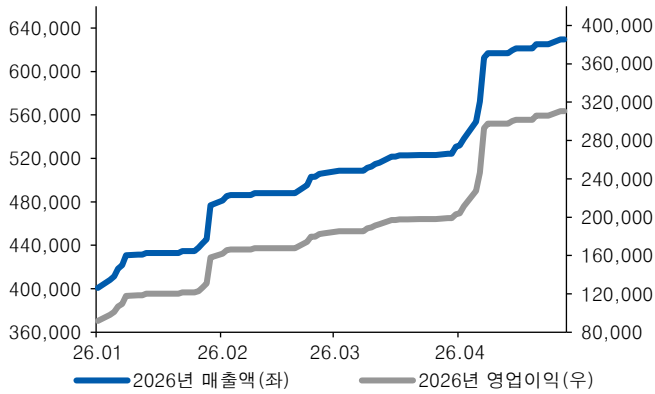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표 5. 미국 빅테크 4사 실적, CapEx 및 특이사항

	실적	CapEx	특이사항	차기 분기 매출 가이드스	차기 분기 매출 컨센서스
알파벳	1Q26FY 매출액 1,099억 달러 달성하며 컨센서스 (916억 달러) 상회하는 호 실적 기록	연간 Capex 를 1,800~1,900억 달러로 상향 조정	연간 투자금액 상승에 따른 투자 효율성 입증 필요	-	1,143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Q26FY 매출액 829억 달러로 컨센서스 (815억 달러), 가이드스 상단 (818억 달러)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	연간 Capex 가이드스로 1,900억원으로 제시하며 AI 인프라 구축 목표	IT 지출 기대치 및 GDP 성장을 둔화 등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우려감 존재	867~878억 달러	876억 달러
아마존	1Q26FY 매출액 1,815억 달러로 컨센서스 (1,772억 달러), 가이드스 상단 (1,785억 달러)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	연간 약 2,000억 달러 수준의 Capex 집행 예정	투자자들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가격 상승,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인플레이션이 올해와 내년 자본 지출(CapEx)에 미칠 영향 우려	1,940~1,990억 달러	1,899억 달러
메타	1Q26FY 매출액 563억 달러로 컨센서스 (555억 달러) 상회, 가이드스 (535~565억 달러) 부합하는 실적 기록	연간 Capex 를 기존 1,150억~1,350억 달러에서 1,250~1,450억 달러로 상향하며 AI 핵심 인프라 투자가속화 목표	소셜미디어 일간 활성사용자수가 전분기대비 5% 이상 감소한 35.6억명을 기록하였지만, CapEx 금액을 늘린다는 소식에 따른 투자자 우려 증가	580~610억 달러	596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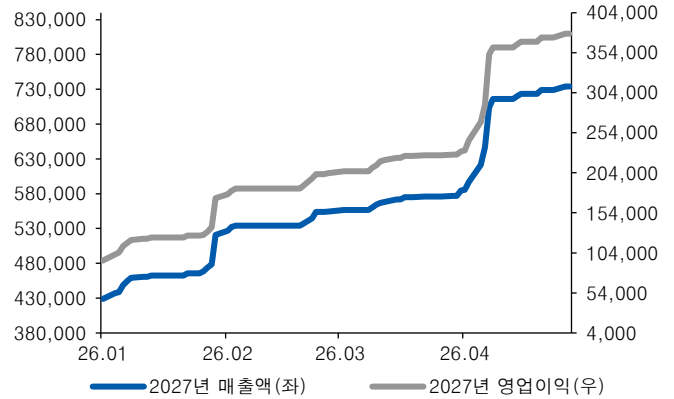
자료: 각사 IR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13. 삼성전자 2026년 매출액,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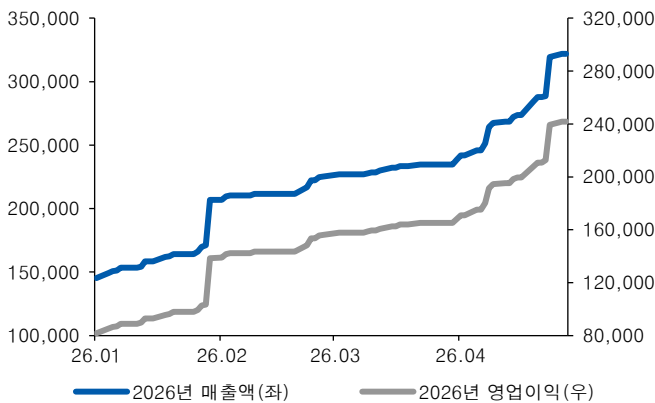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십억원 기준

차트 14. 삼성전자 2027년 매출액,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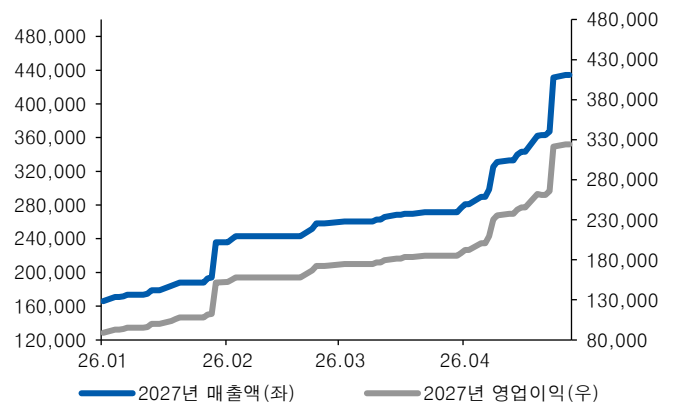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십억원 기준

차트 15. SK 하이닉스 2026년 매출액,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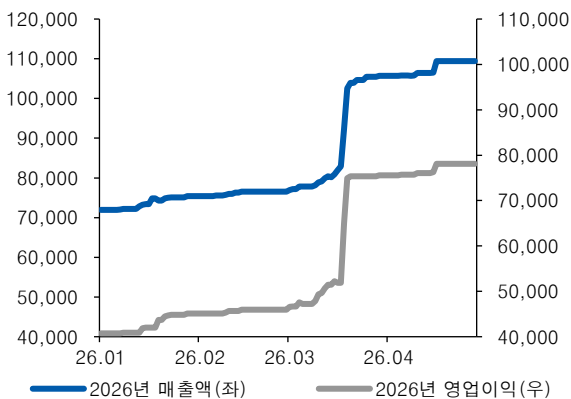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십억원 기준

차트 16. SK 하이닉스 2027년 매출액,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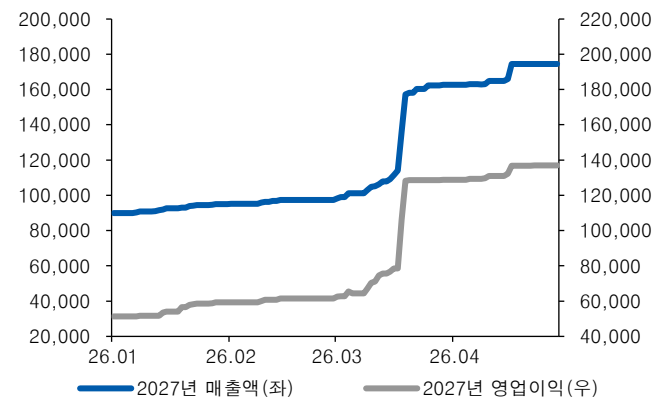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십억원 기준

차트 17. Micron 2026년 매출액,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차트 18. Micron 2027년 매출액,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mnUSD 기준

표 6. 삼성전자 목표주가 산정 테이블

(단위: 원, 배)

	2017A	2018A	2019A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Adj BPS_P (비지배주주지분 제외)	28,971	35,342	37,528	39,406	43,611	50,817	52,002	57,930	63,976	105,915	152,585
PBR_P (End)	1.76	1.1	1.49	2.06	1.8	1.09	1.51	0.92	1.87	2.12	1.5
PBR_P (High)	1.99	1.53	1.53	2.06	2.22	1.57	1.51	1.53	1.89	2.17	1.5
PBR_P (Low)	1.23	1.08	0.98	1.07	1.57	1.02	1.05	0.86	0.79	1.13	0.8
PBR_P (Avg)	1.6	1.33	1.24	1.45	1.82	1.26	1.3	1.24	1.12	1.70	1.2
Target PBR											2.22
Target Price										340,000	338,679
Close Price (4월 30일)										220,500	
Upside potential											54%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Target PBR = 2021년 PBR 밴드 상단값 적용

표 7. SK 하이닉스 목표주가 산정 테이블

(단위: 원, 배)

	2017A	2018A	2019A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Adj BPS_P (비지배주주지분 제외)	47,510	67,794	69,271	74,721	88,543	90,064	76,616	104,567	167,604	471,724	956,094
PBR_P (End)	1.61	0.89	1.36	1.59	1.48	0.83	1.85	1.66	3.88	1.98	0.98
PBR_P (High)	1.90	1.44	1.40	1.62	1.70	1.49	1.88	2.38	3.93	2.33	1.15
PBR_P (Low)	0.94	0.86	0.82	0.88	1.02	0.83	0.95	1.23	0.97	1.37	0.68
PBR_P (Avg)	1.35	1.16	1.09	1.19	1.37	1.13	1.41	1.71	1.84	1.83	0.90
Target PBR											1.90
Target Price										1,900,000	1,817,212
Close Price (4월 30일)										1,286,000	
Upside potential											48%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Target PBR = 2017년 PBR 밴드 상단값 적용

표 8. 삼성전자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P	2Q26F	3Q26F	4Q26F	2024	2025	2026F	
Sales	Total	79,141	74,566	86,062	93,837	133,900	174,375	196,718	213,561	300,871	333,606	718,554	
	Y/Y	10.0%	0.7%	8.8%	23.8%	69.2%	133.9%	128.6%	127.6%	16%	10.9%	115.4%	
	Q/Q	4.4%	-5.8%	15.4%	9.0%	42.7%	30.2%	12.8%	8.6%	-	-	-	
Gross Profit	Total	28,131	25,497	33,492	44,251	81,900	111,600	127,867	140,950	114,309	131,370	462,317	
	(% of sales)	35.5%	34.2%	38.9%	47.2%	61.2%	64.0%	65.0%	66.0%	38%	39.4%	64.3%	
Operating profit	Total	6,685	4,676	12,166	20,074	57,207	86,750	100,753	112,814	32,726	43,601	357,464	
	(% of sales)	8.4%	6.3%	14.1%	21.4%	42.7%	49.7%	51.2%	52.8%	10.9%	13.1%	49.7%	
	Y/Y	1.2%	-55.2%	32.5%	209.2%	754.8%	1755.2%	728.1%	462.0%	398.7%	33.2%	719.9%	
	Q/Q	3.0%	-30.1%	160.2%	65.0%	184.7%	51.8%	16.1%	12.0%	-	-	-	
Net Profit	Total	8,223	5,116	12,226	19,642	43,328	65,279	75,897	85,572	33,621	44,261	270,075	
	(% of sales)	10.4%	6.9%	14.2%	20.9%	32.4%	37.4%	38.6%	40.1%	11.2%	13.3%	37.6%	
	Y/Y	21.7%	-48.0%	21.0%	153.3%	439.7%	1223.0%	532.1%	343.6%	132.3%	31.6%	510.2%	
	Q/Q	6.0%	-37.8%	139.0%	60.7%	124.6%	50.7%	16.3%	12.7%	-	-	-	
Semi	Sales	26,055	28,584	33,092	45,808	81,700	118,090	133,531	152,304	112,842	131,731	485,625	
	Y/Y	11.3%	-1.4%	12.3%	47.8%	213.6%	313.1%	303.5%	246.1%	71.1%	16.7%	268.7%	
	Q/Q	-15.9%	9.7%	15.8%	38.4%	85.7%	44.5%	13.1%	14.1%	-	-	-	
	OP	1,082	384	6,115	16,495	54,003	84,698	96,784	110,318	15,155	22,492	345,802	
	OPM%	4.2%	1.3%	18.5%	36.0%	66.1%	71.7%	72.5%	72.4%	13.4%	17.1%	71.2%	
	Y/Y	-44.4%	-94.0%	61.0%	450.1%	4888.9%	21931.6	1482.6%	639.9%	-204.0%	48.4%	1437.4%	
	Q/Q	-63.9%	-64.5%	1490.8%	169.7%	262.2%	56.8%	14.3%	14.0%	-	-	-	
DRAM	Sales	13,282	14,262	18,152	28,076	53,398	77,954	88,003	100,036	53,789	73,772	319,391	
	Y/Y	27.4%	6.0%	28.4%	77.9%	302.0%	446.6%	384.8%	256.3%	101.7%	37.1%	332.9%	
	Q/Q	-15.8%	7.4%	27.3%	54.7%	90.2%	46.0%	12.9%	13.7%	-	-	-	
Bit shipments	Q/Q	2.0%	11.0%	14.0%	5.0%	0.1%	5.0%	6.0%	6.0%	-	-	-	
ASP	Q/Q	-20.0%	2.0%	14.0%	38.0%	90.0%	40.0%	8.0%	8.0%	-	-	-	
	OP	3,666	3,494	6,424	15,452	44,329	67,982	77,247	87,572	14,734	27,753	277,130	
	OPM%	27.6%	24.5%	35.4%	55.0%	83.0%	87.2%	87.8%	87.5%	27.4%	37.6%	86.8%	
	Y/Y	90.1%	-21.3%	76.8%	226.4%	1109.2%	1845.6%	1102.5%	518.1%	흑전	88.4%	898.6%	
	Q/Q	-22.6%	-4.7%	83.9%	140.5%	212.9%	53.4%	13.6%	13.4%	-	-	-	
NAND	Sales	6,772	7,623	8,540	10,819	23,114	33,101	37,720	43,282	32,483	33,754	137,218	
	Y/Y	-7.8%	-12.5%	2.6%	33.5%	241.3%	334.2%	341.7%	300.0%	93.0%	3.9%	306.5%	
	Q/Q	-16.4%	12.6%	12.0%	26.7%	113.6%	43.2%	14.0%	14.7%	-	-	-	
	Bit shipments	Q/Q	-10.0%	29.0%	10.0%	-8.0%	9.0%	3.0%	7.0%	7.0%	-	-	-
	ASP	Q/Q	-10.0%	-8.0%	4.0%	29.0%	96.0%	40.0%	8.0%	8.0%	-	-	-
		OP	(3)	(229)	459	1,941	10,424	17,415	20,187	23,246	5,221	2,168	71,272
		OPM%	-0.1%	-3.0%	8.0%	17.9%	45.1%	52.6%	53.5%	53.7%	16.1%	6.4%	51.9%
		Y/Y	적전	적전	-72.4%	432.2%	흑전	흑전	4293.5%	1097.7%	흑전	-58.5%	3187.0%
		Q/Q	적전	적지	흑전	322.4%	437.1%	67.1%	15.9%	15.2%	-	-	-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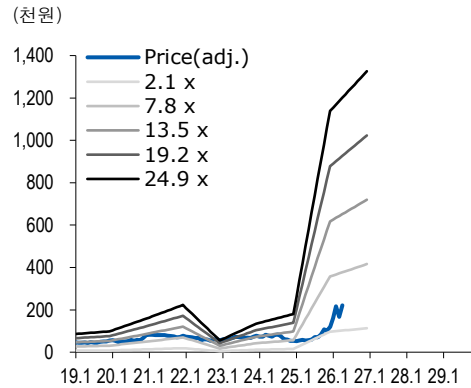
표 9. SK 하이닉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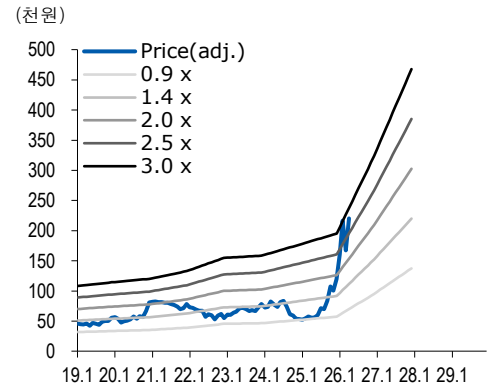
		1Q25	2Q25	3Q25	4Q25	1Q26P	2Q26F	3Q26F	4Q26F	2024	2025	2026F
Sales	Total	17,639	22,232	24,449	32,827	52,576	84,874	101,526	119,718	66,193	97,147	356,960
	Y/Y	41.90%	35.40%	39.10%	66.10%	198.1%	281.8%	315.3%	264.7%	102.00%	46.80%	269.3%
	Q/Q	-10.80%	26.00%	10.00%	34.30%	60.2%	61.4%	19.6%	17.9%	-	-	-
Gross Profit	Total	10,102	11,983	14,029	22,576	41,679	72,143	87,313	104,155	31,828	58,691	305,290
	(% of sales)	57.30%	53.90%	57.40%	68.80%	79.3%	85.0%	86.0%	87.0%	48.10%	60.40%	85.5%
Operating profit	Total	7,441	9,213	11,383	19,170	37,610	65,491	78,974	93,057	23,467	47,206	275,132
	(% of sales)	42.20%	41.40%	46.60%	58.40%	71.5%	77.2%	77.8%	77.7%	35.50%	48.60%	77.1%
	Y/Y	157.80%	68.50%	61.90%	137.20%	405.5%	610.9%	593.8%	385.4%	흑자전환	101.20%	482.8%
	Q/Q	-7.90%	23.80%	23.60%	68.40%	96.2%	74.1%	20.6%	17.8%	-	-	-
Net Profit	Total	8,108	6,996	12,598	15,220	32,270	49,928	60,347	71,218	19,789	42,919	213,763
	(% of sales)	46.00%	31.50%	51.50%	46.40%	61.4%	58.8%	59.4%	59.5%	29.90%	44.20%	59.6%
	Y/Y	323.00%	69.80%	119.00%	90.20%	298.0%	613.5%	379.1%	367.9%	흑자전환	116.90%	398.1%
	Q/Q	1.30%	-13.70%	80.10%	20.80%	112.0%	54.7%	20.9%	18.0%	-	-	-
DRAM Sales		14,195	17,117	19,070	24,949	41,009	65,290	76,860	90,479	45,842	75,331	273,638
	Y/Y	84.90%	50.00%	57.30%	70.60%	188.9%	281.4%	303.0%	262.7%	118.80%	64.30%	263.2%
	Q/Q	-3.00%	20.60%	11.40%	30.80%	64.4%	59.2%	17.7%	17.7%	-	-	-
Bit shipments	Q/Q	-9.00%	23.50%	6.00%	3.00%	0.5%	7.0%	9.0%	9.0%	-	-	-
ASP	Q/Q	1.10%	2.00%	5.00%	26.50%	64.0%	45.0%	8.0%	8.0%	-	-	-
DRAM OP		7,239	9,089	11,061	16,881	32,058	53,911	64,092	75,668	19,877	44,270	225,728
	OPM%	51.00%	53.10%	58.00%	67.70%	78.2%	82.6%	83.4%	83.6%	43.40%	58.80%	82.5%
	Y/Y	204.20%	94.20%	98.30%	133.10%	342.8%	493.1%	479.5%	348.2%	4188.70	122.70%	409.9%
	Q/Q	0.00%	25.60%	21.70%	52.60%	89.9%	68.2%	18.9%	18.1%	-	-	-
NAND Sales		3,108	4,609	4,890	7,550	11,094	19,170	24,250	28,809	19,184	20,157	83,322
	Y/Y	-29.70%	-9.60%	-0.60%	59.10%	256.9%	315.9%	395.9%	281.6%	98.20%	5.1%	313.4%
	Q/Q	-34.50%	48.30%	6.10%	54.40%	46.9%	72.8%	26.5%	18.8%	-	-	-
Bit shipments	Q/Q	-20.00%	70.00%	-5.00%	12.40%	-10.0%	16.0%	10.0%	10.0%	-	-	-
ASP	Q/Q	-20.00%	-9.00%	10.00%	33.40%	65.0%	50.0%	15.0%	8.0%	-	-	-
NAND OP		62	46	324	2,319	5,544	11,601	14,903	17,411	3,891	2,752	49,459
	OPM%	2.00%	1.00%	6.50%	30.70%	50.0%	60.5%	61.5%	60.4%	20.30%	13.7%	59.4%
	Y/Y	-90.90%	-95.90%	-73.60%	171.60%	8817.5%	25070.5%	4495.7%	650.7%	흑전	-29.3%	1697.3%
	Q/Q	-92.70%	-25.90%	603.60%	615.20%	139.0%	109.3%	28.5%	16.8%	-	-	-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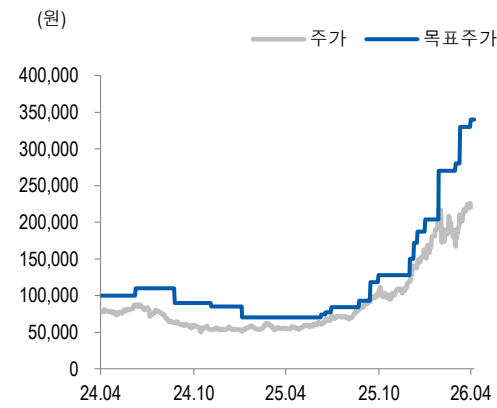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삼성전자 (0059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30	BUY	340,000	1년	-100.00	
2026-04-09	BUY	330,000	1년	-34.51	-31.52
2026-03-31	BUY	280,000	1년	-31.29	-24.82
2026-02-26	BUY	270,000	1년	-29.83	-19.81
2026-01-30	BUY	204,000	1년	-13.68	-0.25
2026-01-15	BUY	187,000	1년	-18.07	-13.16
2026-01-08	BUY	172,000	1년	-19.23	-18.43
2025-12-31	BUY	150,000	1년	-8.92	-6.00
2025-10-30	BUY	128,000	1년	-18.07	-6.33
2025-10-14	BUY	118,000	1년	-16.63	-13.56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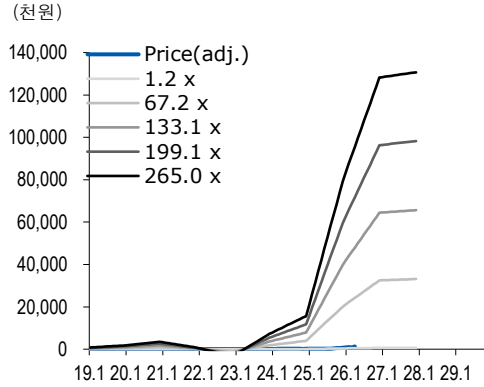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여건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9
Hold(중립)	5.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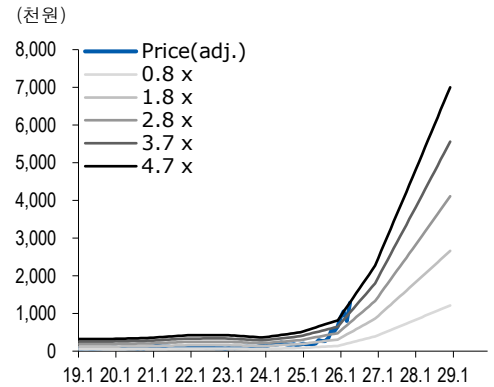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6-04-30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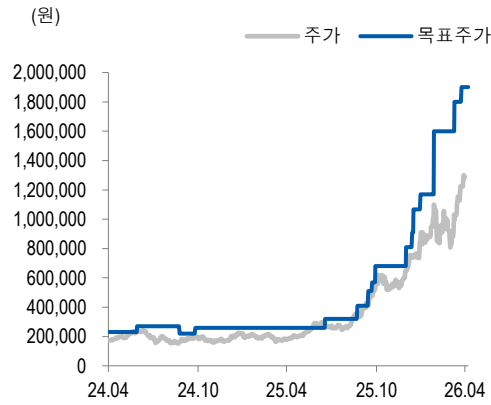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SK 하이닉스 (0006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30	BUY	1,900,000	1년		
2026-04-23	BUY	1,900,000	1년		
2026-04-09	BUY	1,800,000	1년	-37.02	-32.00
2026-02-26	BUY	1,600,000	1년	-41.55	-33.69
2026-01-29	BUY	1,169,000	1년	-22.82	-12.92
2026-01-15	BUY	1,066,000	1년	-28.06	-21.11
2026-01-12	BUY	910,000	1년	-18.68	-18.46
2025-12-31	BUY	810,000	1년	-10.68	-6.67
2025-10-29	BUY	680,000	1년	-16.07	-4.26
2025-09-22	BUY	410,000	1년	-9.60	4.39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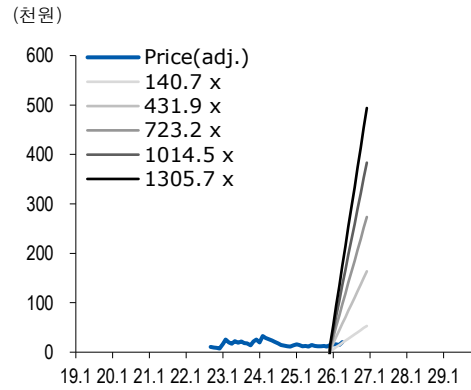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여건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9
Hold(중립)	5.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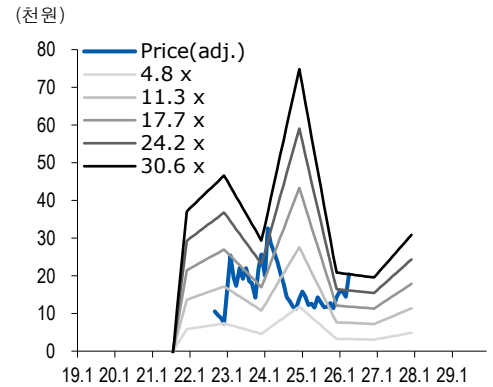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6-04-30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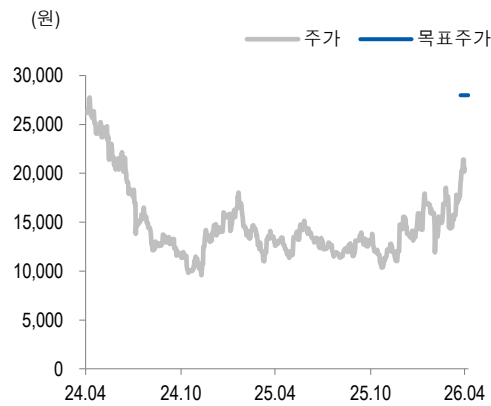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오픈엠티테크놀로지 (39428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30	BUY	28,000	1년		
2026-04-22	BUY	28,000	1년		
2025-12-31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9
Hold(중립)	5.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4-30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백길현**)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